

# 필연이 된 '혼자'의 삶... 한국사회의 변화된 풍경

김수영 서울대 교수, 1인가구 인터뷰 담은 인문교양서 출간

왜 한국 사회의 미래는 가족이 아닌 '혼자'가 됐을까. 1인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추적한 인문교양서가 발간됐다.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펴낸 '필연적 혼자의 시대'(다산초당판)이다.



저자는 2019년부터 한국의 1인가구를 연구하며 연령과 직업, 소득 수준이 서로 다른 100인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이 처한 조건과 삶의 궤적은 제각각이었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이라는 공통의 경험은 이들을 같은 위치에 놓인 사람들로 묶어줬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1인가구가 겪는 위험의 핵심이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관계적 결핍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가구는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40%를 훌쩍 넘는 수치지만, 1인가구는 여전히 설명을 요구받는 삶의 방식으로 남아 있다.

'자기 몸 편한 선택', '결혼할 조건이 안 돼서'라는 통념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은 쉽게 단순화되곤 한다. 그러나 저자가 인터뷰를 통해 마주한 1인가구의 모습은 이와 달랐다. 이들은 자유를 추구하며 전통을

## 생생한 증언·통찰 어우러져 "사회적 돌봄 원칙 확장돼야"

거부한 사람들이거나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충실히 살아온 결과, 필연적으로 혼자에 이른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1인가구의 삶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 바라본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이들 다수는 일과 커리어를 생존의 수단이자 자아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자유는 곧 일에 투입됐고 야근과 자기계발, 이직과 학위 취득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이같은 선택이 개인의 성향이 라기보다, 성취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짚는다. 관계는 유예된 채,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방식으로 삶은

러갔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1인가구의 삶이 곧바로 안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저자는 고소득·고학력 1인가구일수록 오히려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목적과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작동했고, 그 결과 친밀한 사회자본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이는 식생활과 건강에서도 드러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의식과 배달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다인가구에서 돈이 가족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질로 전환된다면, 1인가구에게 경제적 자산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책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1인가구가 마주하는 노년과 죽음의 문제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린 두려움은 '혼자 죽는 순간'이 아니라, 죽은 뒤 '어떻

게 발견될 것인가'였다.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 방지되고 잊힌 존재로 기억될지 모른다는 불안은 삶의 의미 전반으로 확장된다.

저자는 가족이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삶의 존재 이유가 돼주는 장치라면, 1인가구에게는 그 토대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사후에 대한 걱정은 곧 현재의 삶을 지탱할 의미의 공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책은 1인가구의 어려움을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지금의 혼자의 삶이 과도기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내하는 형태라고 말한다. 후기 자본주의가 이미 삶의 형태를 바꿔 놓았지만, 이를 떠받칠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적 돌봄의 원칙을 1인가구에게도 확장해야 한다"며 "독립이 곧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진기자

## 새로 나온 책



▲달걀의 온기=김혜진 저자  
개인과의 접점을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하게 포착해내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와 거기서 비롯된 균열을 담담히 응시해온 김혜진의 네 번째 소설집이 발간됐다. '달걀의 온기' 속 작품들은 타인과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 애쓰면서도 결국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야 마는 이들의 '과묵한 선의'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 소설은 거창한 연대나 뜨거운 위트가 아니라 조심스럽고도 완강한 다정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홀로 걷고 있는 이들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섬세하고도 따스한 응답이 돼 주는 작품집이다. /장비·1만7천원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강철원 저자  
바오패밀리를 돌보는 주키퍼 강철원이 텃밭 농부로 변신해 식물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다. '매일 아침 나는 텃밭에 간다'는 동물을 돌보는 손길로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며 삶의 지혜를 깨닫는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밭에서 경험한 추억, 가족의 식탁을 채우는 작물들, 그리고 푸마오와 바오패밀리를 떠올리며 키운 당근과 남천까지 텃밭 구석구석마다 그의 인생이 축축이 스며 있다. /한스미디어·1만8천500원



▲개똥비루 게스트하우스=범유진 저자  
판타지, 호러, 청소년 등 장르를 넘나들며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범유진 작가가 요괴들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독특한 설정의 소설로 돌아왔다. 이 책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인간과 요괴들이 함께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하며 연대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소설은 '타인과 함께 하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을 때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모모·1만7천원



▲파란 토마토 블루=엠버 아워 글·그림, 김영아 옮김  
모두가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 밭에서 블루는 혼자만 파란색으로 남아있다. "나도 빨간색이 되면 친구들처럼 멋져 보일까?" 블루는 가만히 앉아 고민만 하지 않는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용기내 길을 나선다. 페인트를 칠해 보고, 빨간 주스를 마셔보는 등 변화를 시도한다. 변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순간은 블루를 조금씩 성장시킨다. 그래서 블루가 빨갛게졌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블루의 여행은 블루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데려다준다. /노는날·1만7천원

# 비움과 채움 사이...삶의 의미를 묻다

## 윤영숙 시조시집 '소유의 의미' 출간

삶의 소유와 비움 사이에서 쌓여온 사유가 시의 언어로 묶였다. 윤영숙(사진) 시인의 첫 시조시집 '소유의 의미'(현대문예)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무엇을 마음에 남기는가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다룬다. 시인은 삶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감정과 기억을 차분히 되짚으며, 일상에서 건져 올린 사유를 시조 형식으로 풀어냈다.



시집은 총 5부 108편으로 구성됐다. 1부 '소유의 의미'를 시작으로 2부 '기다리는 봄', 3부 '도화지 위의 오블', 4부 '봄꽃 사랑이고 싶어', 5부 '음 악처럼 흐르는 행복'까지, 각 부마다 삶의 계절과 감정의 결을 따라 시선이 이어진다. 무등산 자락의 자연 풍광과 오랫동안 시를 가까이해온 시인의 내면이 어우러지며, 서정적 정서가 전반을 이끈다.

시집에서 드러나는 시인의 중심 관심은 삶을 관조하는 태도에 있다. 삶이란 무엇인지 묻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찰을 시로 담아낸다. 순수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한 시조시집이라는 점에서, 절제된 언어 속에 사유의 깊이를 더한다.

표제작 '소유의 의미'는 가정법으로 시작해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따라 흐른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결을 따라가며, 생각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시인은 "삶은 끊임없이 소유와 비움 사이를 오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길 위에서 마음에 남은 흔적들을 시의 언어로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집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숙 시인은 장흥출신으로 '시학과사' 시부문 문학상과 '현대문예' 시조 부문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섰다. 이후 현대문예작가회, 호남시조시인협회, 광주문인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문예협회 시낭송 대상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병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b>시내 지역</b>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명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국 944-0993	
<b>지방 지사</b>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